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전담신부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주일미사 오후 3시	고해성사 오후 2시 30분	성당주소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전화 0490-795-346	카카오톡 채널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59 (주께선 나의 피난처)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188 (천사의 양식)	39 (하나되게 하소서)

제 1독서 | 창세기 18,1-10

화답송 |

◎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좌)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우)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좌)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제 2독서 | 콜로새서 1,24-2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 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0,38-42

영성체송 |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Today's Gospel (Luke 10,38-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
 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두는데도 보고
 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Jesus entered a village where a woman whose
 name was Martha welcomed him. She had a sister
 named Mary who sat beside the Lord at his feet
 listening to him speak. Martha, burdened with
 much serving, came to him and sai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by myself
 to do the serving? Tell her to help me." The Lord
 said to her in reply, "Martha, Martha, you are
 anxious and worried about many things. There is
 need of only one thing.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and it will not be taken from her."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묵상 나눔>

오늘 읽은 구절은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여인은 누구입니까? 마르타와 마리아, 라자로의
 자매인 이들은 주님의 친척이자 충실한 제자들이며, 베타니아에 살았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타는 ‘온갖 시중을 드느라 분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을 짧은 방문 동안 기쁘게 맞이하지만, 그 방식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을 듣는 데 전념하고, 마르타는 모든 준비에 몰두하여, 급기야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40절). 예수
 님께서는 부드럽게 타이르듯 대답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것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관상과 이웃에 대한 실천적 봉사가 서로 반대되
 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태도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
 적인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결코 분리되어선 안 되고 오히려 깊은 일치와 조화 속에 살아가야 할 측면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르타는, 비록 친절하게나마,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타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만이 본질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해야 할 일들’에 너무
 몰두하고 걱정한 나머지,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와 사랑의 실천은 모든 행동의 원천인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즉 제자로서 예수님
 의 발치에 앉는 마리아와 같은 자세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타가 책망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기도와 행동은 언제나 깊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도가 곧 실천, 곧 우리의 형제--가난한 이, 병든 이, 도움이 필요한 이, 어려움에 처한 이--를 향한 행동
 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메마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행동만에 집중되어 사물, 기능, 구조가 중요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잊혀질
 때도 위험합니다. 주님과 대화의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
 을 위한 봉사에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자들의 삶의 본보기를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라는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주님과 깊은 우정, 관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온유함을 다
 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한 실천적 사랑, 자비의 행위 역시 우
 리를 주님께 이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이웃 안에서 바로 주님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것을 배운다 - Sr.김영선 루시아 수녀

‘바닥 체험’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이 바닥은 우리가 경험하는 무력함의 정점을 가리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며,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상황이기에 벗어나는 것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나를 향해 내뻗으신 하느님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어느새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던 한 이스라엘 임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 임금과 잦은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힘의 균형은 아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군이 쳐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갈을 보내어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아람 임금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였습니다. 식량 공급이 끊긴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인육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엘리사가 전쟁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였기에 이마저도 실패한 임금은 엘리사에게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은 분명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바라야 한단 말이요?”(2열왕 6,33)

임금은 이 말로 깊은 절망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무력감은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임금은 눈과 귀가 열려 다른 가능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엘리사 예언자는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두 스아가 한 세켈 할 것이다.”(2열왕 7,1)

(주석: 스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된 용량 단위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나. 약 7~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세켈은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4일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사마리아는 아람군의 포위로 극심한 식량난, 치솟는 물가,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한 스아(약 7~8리터, 상당한 양)와 보리 두 스아(약 15리터)가 한 세켈에 거래될 것이라는 말은 풍요가 임할 것이며, 기근 속에서 상상할 수 없던 회복의 징표입니다. 이는 현실적 조건이나 인간의 예측, 절망을 초월하여 하느님께서 직접 급변하는 구원과 회복을 주도하신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곧 내일이 되면 포위는 풀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무관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7,2)

그는 하느님마저 인간의 가능성 속에 묶어 두려 합니다. 자기 눈에 불가능한 일은 하느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해 질 녘에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환자 넷이 아람 진영에 갔다가 그들의 진영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람군은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용병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쳐들어 온다고 생각하고 허둥지둥 물러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소식을 한밤중에 들었던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예언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의 이야기는 고통과 절망이 희망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걸림돌이었던 고통은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최고의 것, 곧 희망을 얻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 전 기도를 바쳐볼까요?＞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과

저희에게 하소서

우리 주 를 통하여 비나이다.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4' - 영적독서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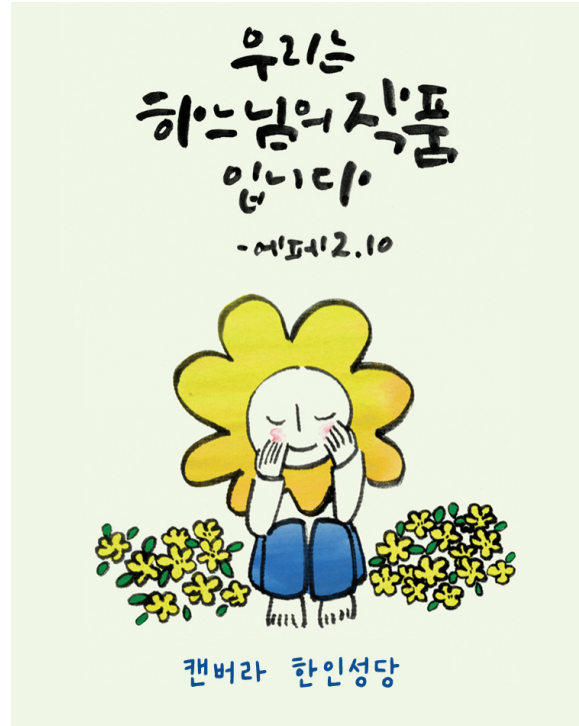
- 일시: 이번주 수요일 저녁 7시 (온라인 모임)
- <프랑수아 모리아크의 예수>, 295p까지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만났습니다>, 206p까지
<정채봉 시집>, 마음에 드는 시 한 편 고르기.

2. 다음주 미사 관련 공지

주임신부의 시드니 청년성서 연수 강의(7월 24일~27일)로 인하여, 다음주 주일 (7월 27일) 미사에는 시드니 한인성당의 김윤재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드립니다.

3.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재개

잠시 방학을 맞이했던 식사 및 간식 나눔이 8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나눔을 준비해 주시는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교구 손님 신부님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첫째 주가 아닌 둘째 주(8월 10일)에 식사나눔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따스하고 기쁜 한 주 보내세요~

| 미사 참례자 수 |

7월 6일	유아·청소년: 27명	성인: 54명
7월 13일	유아·청소년: 11명	성인: 39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7월 20일)	마르코반
다음주 (7월 27일)	마태오반

| 우리들의 정성 | (7월 12일 ~ 7월 18일)

봉 헌 금	\$ 172			
교 무 금	\$ 380			
구민식	권묘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장호훈	정은영	주정자		

| 기도 지향 |

- * 한영길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강백일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